

SKT, 최신 GPU 클러스터 ‘해인’ 가동
K-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에 앞장

**- 1천 장 이상의 엔비디아 B200기반 국내 최대 규모 단일 클러스터 구성해 GPUaaS 제공**

**- 과기정통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 공급사로 선정,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 美 AI DC 통합 솔루션 대표 회사, 펭귄 솔루션스와 협력… 클러스터 구축 및 무결점 운영 추진**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8. 5.]**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지난 8월 1일, 최신 B200 GPU 기반의 소버린(Sovereign)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 GPUaaS : 대규모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해 설계된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에 선보이는 GPUaaS는 1천 장이 넘는 엔비디아의 최신 AI칩인 ‘블랙웰 B200’(이하B200)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성능의 GPUaaS다. 이는 지난 12월 출시한 H100 기반 GPUaaS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로, 향후 국내 AI 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가산 AI 데이터센터(이하 AI DC) 내에 H100에 이은 최신 B200 GPU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GPU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AI DC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클러스터 구축은 SKT의 AI DC 경쟁력과 글로벌 AI 대표 주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루어졌으며, SKT AI 피라미드 전략의 자강과 협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클러스터 명은 ‘해인(海印, Haein)’으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이번 SKT B200 클러스터가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품은 K-소버린 AI인프라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SKT의 이번 해인 클러스터의 GPUaa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GPU 임차 지원 사업은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 AI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S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산 AI DC를 국내 AI 산업 발전의 중추적 기반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GPUaaS 출시를 위해 美 AI DC 통합 솔루션 대표 회사인 펭귄 솔루션스(Penguin Solutions)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펭귄 솔루션스는 엔비디아 인증 10대 구축 파트너로서 25년 이상 HPC(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설계, 제공 및 관리에 주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SKT는 지난 ‘24년 7월 펭귄 솔루션스와 자사 AI 투자 중 최대 규모인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시너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차별화된 GPUaaS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사인 글로벌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 내 GPU 서버를 빠르게 수급하여 적기 제공할 수 있었다.

SKT의 독자적 기술력도 다각도로 활용된다. 자체 가상화 솔루션인 ‘페타서스(Petasus) AI 클라우드’를 활용, GPU 클러스터를 고객 수요에 맞춰 즉시 분할하고 재구성해 가동률을 극대화 했다. 또 대규모 모델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AIOps\*인 ‘AI Cloud Manager’를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작업 효율성과 개발 편의성을 제공한다.

\* AIOps(AI for IT Operations) : 개발-학습-배포 등 AI 서비스 개발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솔루션

이번 SKT의 B200 기반 GPUaaS 출시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람다(Lambda)의 한국 리전(Region) 개소에 이은 또 하나의 실질적 성과로, SKT의 글로벌 AI DC 사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SKT는 앞으로도 GPUaa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국내 AI 사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국 SKT GPUaaS사업본부장은 “최신 GPU인 B200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로 준비한 SKT 해인 클러스터의 GPUaaS는 고객 및 국가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인프라 사업자로서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8월 1일, 최신 B200 GPU 기반의 소버린(Sovereign)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1, 2 : SK브로드밴드 가산 AI DC에 구축된 B200 클러스터 ‘해인’의 모습
* 사진 3, 4 : SKT 구성원들이 가산 AI DC에서B200 GPUaaS(GPU-as-a-Service)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테크PR팀 김재익 매니저(02-6100-6714)**

**끝.**